ANSI Homecoming Seminar

대학원에서 인생 배우기

JuHeon Ha
Ajou University

2026. 11. 07

Contents

- **Bio**
- 개발자 하다가 대학원에 온 이유
- 대학원생은 어떻게 사는가?
- **대학원의 효능**
- 요즘 드는 생각
- **Q & A**

Bio

- 하주헌
- 소프트웨어학과 학부 졸업(2017 ~ 2023)
  - 학점 망했음 (3점 초중반)
- A.N.S.I. 활동(2017~2023)
  - 나름 회장도 하고 학술부장도 하고 많이 활동했던 듯
  - APC, shake! 대회 출제 겸 디렉터
  - PS를 잘한건 아니었지만 그냥 꾸준히 했다 정도?
- 인공지능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(2025~)
  - 연구분야 : LLM Interpretability, Safety alignment, Humen-centered AI
  - 쉽게 얘기해서 LLM을 어떻게 더 사람처럼 행동하게 만들 수 있을까? 내부 메커니즘 연구
  - *Empathy Is Steerable but Multi-Axial: Mechanism Geometry and Persona Effects in LLMs* [**EMNLP 2026 Main**]
  - 그 외 Under Review 논문 2편
  - 지금도 계속 논문 작성/후속 연구 절찬리 진행 중…
- 근데 사실 나는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였단거임
  - 학부 2023년에 졸업하고서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…



juheon.dev (BLOG)

linkedin.com/in/hajuheon/

1 개발자 하다가 대학원에 온 이유

- 다니던 회사에서 재정문제로 인해서 layoff..
- 그 중에 나도 포함되서 갑자기 실직자됨
  - 인생 난이도 갑자기 급상승.. 이거 인생이 좀 재밌겠는데?
- 이곳 저곳 회사 면접보러 다님. 금방 붙을 것 같다가도 매번 최종 컬쳐핏 면접에서 떨어져서 현타옴
- 최종 합격한 회사 몇 곳 있기는 했는데 조건이 마음에 안들어서 그냥 안 가기로 함 (쉬었음 청년에 편승하기)
- 아 앞으로 뭐하면서 살까 고민하다가 그 무렵에 생성형 AI(Cursor)가 급부상 하기 시작함. 한번 써봤는데 코딩 진짜 너무 잘함
- 이대로 가다간 개발자 업무도 AI한테 싹 다 먹혀버리겠다고 느끼고 커리어 전환해야 할 것 같다 생각함
- 개발자는 어느 도메인이건 간에 AI한테 먹히는건 시간 문제일 것 같았음. 내 결론은 AI한테 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expertise 가 요구되는 일을 해야되겠다고 생각함
- 그래서 내 일자리를 파괴한 AI를 복수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대학원에 가야되겠다고 다짐함
- 근데 생각해보니 나는 학부 때 AI랑 담 쌓고 공부 안했음. 이거 AI 대학원 가는게 맞나?
- 그래서 6개월 동안 다시 학부수준 AI부터 다시 공부해서 대학원 들어감 (공부했음 청년)
- 대학원 들어가서도 좀 열심히 살아서 석사 2학기에 논문 쓰고 운 좋게도 컨퍼런스 붙음
- 복수성공

1

대학원생은 어떻게 사는가?



1 대학원생은 어떻게 사는가?

- 대학원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'**논문을 써야 한다**'
- 논문 = 내가 수행한 **연구**의 contribution, novelty, soundness을 세상(학계)에 주장하기 위한 문서
- 좀 거창하게 포장한다면, 인류의 지식을 확장해 나가기 위한 연구자간의 오랜시간 합의된 claim format
- **연구**란 어떻게 이뤄지는가?
  - 다른 연구자들이 파놓은 땅굴(지식)을 토대로 아직 파헤쳐지지 않은 미개척 땅을 파러 가는 일
  - 근데 그 땅에서 뭐가 나올지 모름(아무 것도 안 나올 수도 있음. 그러면 연구 실패임)
  - 즉 연구역량 = 연구 성공 확률이 높은 땅이 어느 곳일까를 잘 찾는 능력 + 그 땅을 어떻게 잘 파헤칠까에 대한 능력
  - 불확실한 가능성에 수개월의 시간을 베팅해야함(과연 내가 시간을 이만큼 투자해서 이만큼의 연구 성과가 나올까? 견적을 잘 봐야함)
- 대학원생은 일단 본인의 연구 분야를 정해야함. 단 사람마다 정하는 기준이 다름.
  - 교수님이 주제 정해주는 사람
  - 학계에서 인기 있는 주제를 찾아서 짧은 주기로 주제 환승하는 사람
  - 인기 같은거 신경 안쓰고 그냥 자기가 재밌는 주제만 우직하게 연구하는 사람 -> 이게 제일 이상적인 형태이긴 한데…

1 대학원생은 어떻게 사는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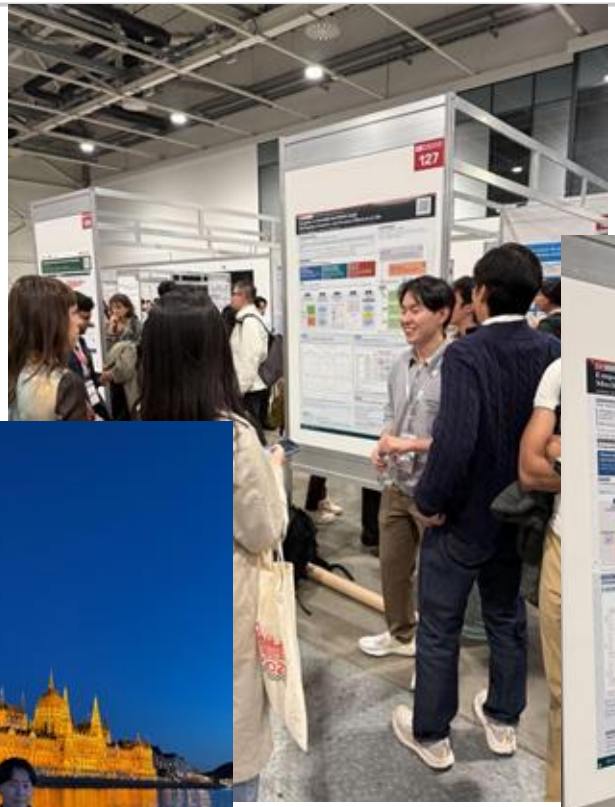
- 주제를 정했으면 해당 분야의 선행 연구(related works)를 찾아보면서 남들은 어떤 연구하는지 감을 잡고 미개척된 영역을 찾아봐야함
  - 이 작업은 호기심 많거나, 공상가, brainstorming 좋아하는 사람이 유리(아이디어 빠르게 잘 찍어내는 사람)
  - 아직 AI한테 맡겨도 잘 못해서 아직까진 사람의 의존성이 가장 큰 단계
  - 선행 연구 논문 계속 읽다보면 대략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는구나 하는 감이 온다.(background 구축하기 단계)
  - 미개척된 영역을 찾으면 연구가설(RQ)를 정하고, 해당 가설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험과 태스크를 돌려야 하는지 실험 디자인
- 세부 태스크를 정했으면 본격적으로 실험을 돌려야함
  - '이렇게 돌려보면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까?'하는 생각이 들면 실험을 돌려보면 된다
  - 그렇지만 대부분의 실험은 실패함(95% 이상 실패). 실험이 실패했다고 끝인게 아니라 **왜 실패했는지 분석하는게 중요하다.**
  - 해당 실험 조건을 바꿔서 추가 실험을 해보거나,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포기하고 다시 새로운 실험을 생각해본다.
  - 이렇게 돌리다보면 성공하는 실험이 나오고, 그게 쌓이면 연구 가설을 지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. 그때 논문을 쓰면 된다

1 대학원생은 어떻게 사는가?

- 실험이 잘 나왔다고 논문이 accept 되는게 아니다. 논문에 어떻게 presentation 하느냐가 관건이다.
  - 본인이 읽은 논문 수가 많을수록 내가 쓰는 논문도 잘 쓰게 된다.(읽은 논문이 곧 기초체력)
  - 그런데 요즘은 솔직히 AI가 논문을 잘 써주기 때문에 평준화가 많이 됐다.(주니어 연구자의 논문의 저점이 상당히 높아짐)
  - 물론 AI가 써준거 그대로 내면 안된다. 피규어, 테이블 배치나 문장 다듬기, 이상한 단어 교체 등 수정 작업하는데에만 2주 이상 소요된다. 저자가 논문의 큰 뼈대를 잡으면 AI가 대략적인 밑그림을 그려주고, 세세한 디테일은 다시 사람이 잡아야 한다.
- 논문을 제출하고 기도하면 된다.
- 한두달 지나면 리뷰어가 내 논문을 점수를 매겨서 평가해준다.
  - 리뷰어가 배정도 사실 운빨이다. 좋은 점수를 잘 받았을 때 학회를 뚫는게 중요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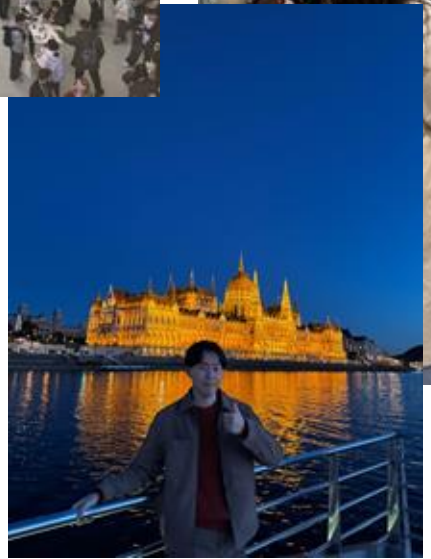
1 대학원생은 어떻게 사는가?



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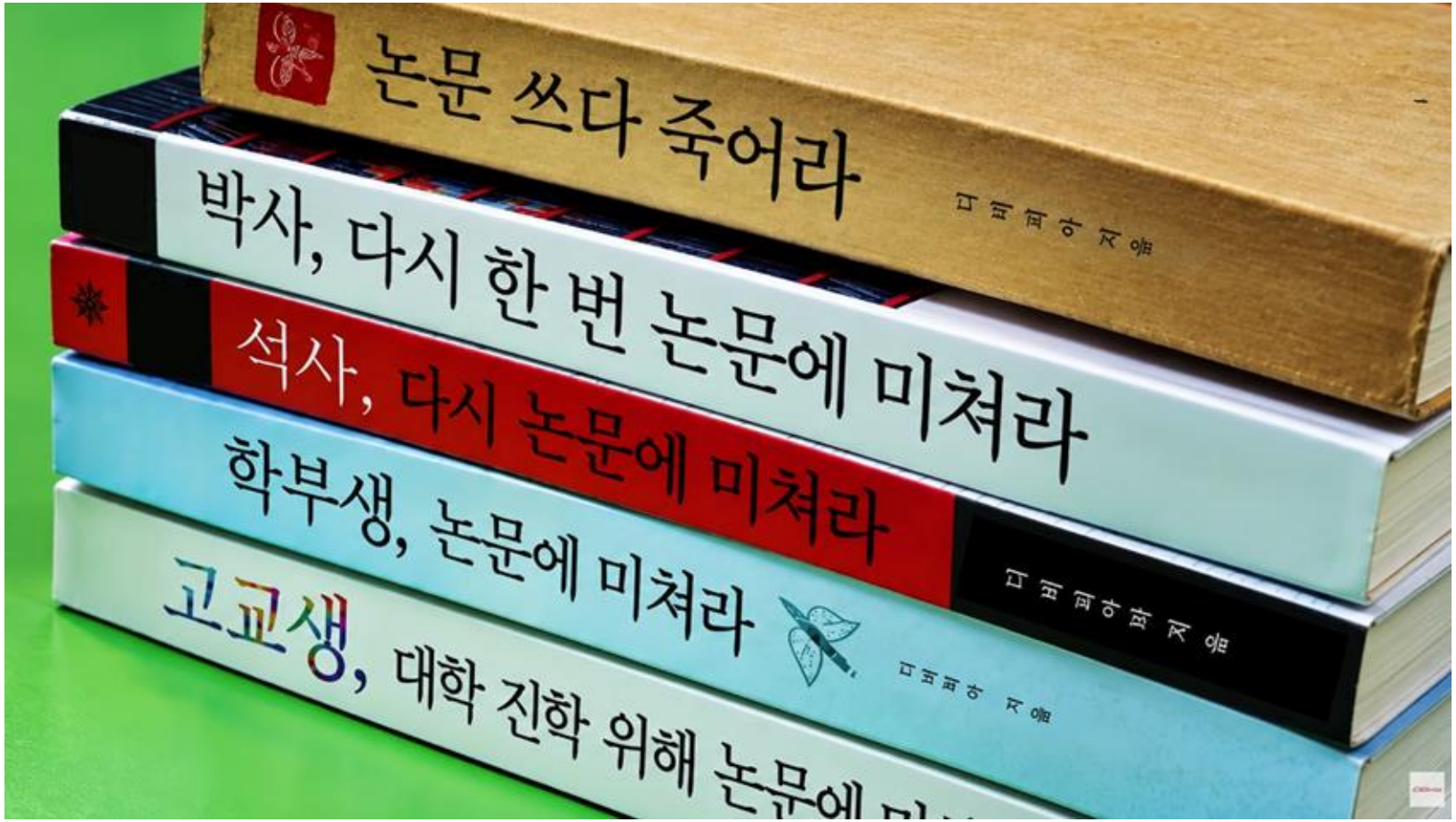
1 대학원 vs 회사(직장인)

	학생	직장인	공무원	대학원생
돈	x	o	x	x
시간	o	x	x	x
워라밸	x	x	o	x

- 애초에 두 집단은 성격과 지향점이 완전히 다르다.(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게 의미없음)
- 직장인은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돌아감. 즉 회사의 니즈에 의해 직원이 굴러가기 때문에 수동적
  그에 비해 대학원은 개인의 자율성이 더 보장된다. 본인 템포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으며 능동적
- 회사에서는 내가 적게 일하든 열심히 일하든 그것에 대한 보상의 범위가 정해져있음.
  대학원은 내가 열심히 할수록 성과(논문)는 따라옴. 하지만 월루하려고 하면 본인만 손해임(열심히 할 사람만 와야함)
- 그렇지만 연구는 불확실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한다 해도 성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음. 불확실성을 버틸 수 있어야함
- 가장 중요한 건 지도교수님의 성향이나 가치관이 본인과 잘 맞아야한다. (관리형 vs 자율형)

1

대학원생은 어떻게 사는가?



1 대학원의 효능

- 세상에 진짜 똑똑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된다.
- 세상에 진짜 이상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된다.

- 내 연구 말곤 세상에 아무 관심이 사라진다.(내 논문 말고 뭐가 중요한데)
- 물욕이 사라진다. (돈 많다고 내 논문이 accept 되는 것도 아님)
    - 사람의 뇌구조가 철학적으로 변하는 거 같다.
- 논문 쓰는게 가끔 재밌게 느껴질 수도 있다.
    - 내가 가진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텍스트에 갈아 넣는 행위
- **내 생각을 남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.**
    - 글을 어떻게 써야하는지, 사람들 앞에서 발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
- 지적 호기심을 내 손으로 직접 파헤쳐나간다는 것에 미묘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.
- 논문 accept 되면 학교에서 학회(해외여행) 보내준다.

1 요즘 드는 생각

1. 세상에 쓸모 없는 경험이란 없다. 나중에 그게 어떻게 돌아올지 모른다.

- 세상 어떤 일이든 의미가 있다. 어차피 해야할 일이라면,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찾아보자 (럭키비키 마인드)
- 나중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. 3년 전만 하더라도 내가 대학원에 올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다. 학부생 때 AI와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대가를 치뤘다.
- - 학부생 시절에 호기심으로 심리학 강의 2개를 수강했었는데, 7년이 지난 현재 대학원에서 LLM 연구하면서 그 때 배웠던 지식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.
- 회사 인턴, 연구실 인턴 등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시도해보기를 추천한다. 설령 그 일이 나랑 잘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귀중한 교훈이다. -> 수 많은 경험 test case 를 겪어보면서 내가 어떤 걸 잘하고 못하는지를 파악하는게 중요하다.
- 지금은 비록 웹개발자 직업은 전환했지만, 회사를 다녔던 업무 경험과 엔지니어링 지식은 대학원에 와서도 쓸모가 있다.

2. 빨리 도전하고 빨리 ~~쳐맞카~~실패하기

- 한국 사회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실패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게끔 프로그래밍되기 때문에, 대부분은 완벽에 집착하게 되고 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됨
- 근데 그렇게 해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음. 만약 실패한다면 충격이 커질 수밖에 없음
- 그래서 그냥 빨리 도전해보고 실패하는게 나음. 실패의 시행착오 속에서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 파악하고 고쳐나가는게 더 효율적
  -> 사람이든 딥러닝이든 loss 가 커질수록 성능이 좋아진다.
- 더군다나 요즘같은 AI 시대에서는 실험(실행)의 난이도가 매우 낮아졌고 빨리 돌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메타가 훨씬 유리함
- 처음 도전할 때 누구나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똑같다. 문제는 심리적 저항감이다.
- 실패에 대한 심리적 완충 buffer 를 어렸을 때부터 훈련할수록 좋다. (실패하면 그냥 다음에 또 시도하면 된다는 마인드)
- 익숙한 일만 하지 말고 가끔은 safe zone 에서 벗어나서 낯선 일을 도전해보는 연습을 해놓자.

3. 기록을 해놓는 습관은 도움이 된다.

- 프로젝트, 과제, 연구 등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산출물은 기록해놓는게 좋다(github, 구글 드라이브 등)
- 특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지,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, A와 B 중에서 무엇을 왜 선택했는지 등
- 자신의 머리 속에 있는 정돈되지 않은 무의식 상태의 지식, 생각을 텍스트나 말 같은 formal 한 형태로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하다.
- 단, 생성형 AI에 너무 의존하면 위험 (본인이 직접 설명할 줄 알아야함)
- 나 같은 경우 2019년부터 PS 문제풀이, 개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텍스트로 작성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왔던게 큰 도움이 되었음
- AI 시대에서는 결국 자신의 머리 속 생각을 잘 표현하는 역량이 중요해지지 않을까? 하는 생각함

4. 기회는 원래 운빨이 99%다. 근데 그 운은 본인이 만들어 나갈 수 있다.

- 취업이든, 인간관계든, 논문이든 다 해당됨
- 기회는 '빗줄기 속 한방울 이론'이다. (내가 만들어 낸거임)
- 자신을 최대한 기회가 많이 쏟아지는 환경에 노출시켜 놓아야 한다. 기회는 사실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서 많이 쏟아지고 있을 수도 있다.
- 그리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 잘 잡을 줄 알아야 한다. 막상 찾아왔는데 고민하면서 시간을 허비한다거나,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날려보내지 말자.
-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고 기회는 운빨이다. 그 운이 나한테 올 수도 있고 남한테 갈 수도 있다. 이걸 가지고 세상 원망해봐야 본인만 피곤해지니 그냥 받아들이자.(운 총량 보존 법칙)

Q & A